

### III

##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

황 혜 성

한성대학교

이벽에는 수만 개의 시가 새겨져 있네  
모두 불만과 슬픔의 울부짖음이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 성공하는 날,  
나는 지금 이 때를 꼭 기억하리라.  
- 상한에서 온 한 중국인 -

### 타이러스 웡 이야기

타이러스 웡<sup>Tyrus Wong</sup>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제작 한 밤비<sup>Bambi</sup>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아티스트이다. 하지만 디즈니사에서 일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왕정여<sup>Wong Geng Yeo</sup>였다. 웡이 1919년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찾아 금산<sup>Gold Mountain</sup>이라 부르는 미지의 장소, 즉 미국으로 향하는 <차이나<sup>ss. China</sup>>호 증기선에 승선했을 때 그는 9살이었다. 그의 손에는 항해 내내 종이가 가득 쥐어져 있었고, 밤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그야 말로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모두 암기해야 했다. 그는 ‘서류상의 아들<sup>paper son</sup>’이었다. 다시 말해서 웡의 아버지는 룽깃<sup>Look Git</sup>이라는 상인으로, 그리고 웡은 그의 아들 룽타이여<sup>Look Tai Yow</sup>로 신분을

위조하였다. wings은 매일 밤마다 동네 사람들 성씨는 무엇인가? 동네의 연장자는 누구인가? 옆 동네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등의 잡다하고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외웠다. 아버지는 이민국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할 터인데 만약 똑같이 대답하지 못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고 다시는 금산에 갈수 없다고 말했다.1)

3주 정도의 항해 끝에 마침내 그들은 엔젤섬에 도착했고 이민국으로 향했다. 예전에 미국에 거주했었던 아버지는 별 문제 없이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wings은 엔젤섬이민국 막사에 억류되었다. 수주일 동안 불안과 외로움에 떨며 막사에서 지내던 그는 마침내 세 사람이 앉아있는 사무실로 불러갔고, 퍼붓는 질문을 받았다. “너의 집에 창문이 몇 개인가? 너희 동네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학교에 다녔는가? 등등. 소년은 매우 불안하고 떨렸지만 아버지가 미리 준비시킨 답들을 기억했다. 마침내 그는 엔젤섬에서 풀려나 아버지와 상봉할 수 있었다. 서류상의 이름이었던 룩타이어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짜 이름과 서류상의 이름을 조합해서 타이러스 wingsTyrus Wong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wings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191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엔젤섬이민국을 경유한 175,000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이야기이다. 그들 중 80%~90%는 신분을 위장한 ‘서류상의 아들과 딸들paper sons and daughters’이었다.2)

타이러스 wings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위조한 서류를 지니고 입국한 데에는 1882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중국인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에 의해 중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이 중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교사, 학생, 상인, 외교관등 엘리트 계층의 중국인만 입국할 수 있었고, 이들 면책 계층은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유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법은 허점이 있었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의 혈족은 어디서 태어나든 미국 시민권 자격이 부여되고, 서류만 갖추면 입국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중국인들은 암시장에서 위조된

서류를 구입하고, 친척 중에 미국 시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서류를 들고 가짜 이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sup>3)</sup> 여기에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시청이 불타면서 모든 출생기록이 소실되자 이미 미국에 있던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권을 지닌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보고하고 서류를 발급 받기도 했다. 이 서류는 자신의 아들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친구들 이웃, 모르는 사람에게 팔기도 했고, 급기야는 이 서류를 사고파는 중간상인까지 등장했다.<sup>4)</sup>

중국인배척법 시행 후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선착장에 마련한 막사에서 이민수속 절차를 시행했다. 하지만 세관행정도 느슨했고, 아직 입국심사에 대한 지침서도 없었으며, 국경감시도 정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여부는 샌프란시스코 세관원들의 재량에 맡겨졌다. 그러나 1906년 화재 이후 점차 “서류상의 자식들”이 증가하자 세관원들은 서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철저하게 탐문하기 시작했고, 1910년경에 이르면 이런 관행이 고착되었다. 따라서 입국 신청자는 가계와 족보는 물론 고향마을 위치, 집 등에 관한 아주 상세한 것까지 대답해야했다. 심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을 불러 대질 교차확인도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 되면 신청자는 물론 불러온 다른 가족까지 추방당했다. 입국이 허가된 이후에도 언제 다시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이 상세한 질문들을 평생 기억해야만 했다.

엔젤섬이민국은 중국인배척법을 구현하고 서류를 위조한 입국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장소였다. 1904년 2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엔젤섬에 이민국을 세울 계획을 세웠고, 엔젤섬 북쪽에 20에이커의 부지를 마련하여 1905년부터 건설을 시작했다. 설계는 월터 매투스Walter J. Mathesw가 맡았으며 임시수용막사, 감시타워, 행정실, 병원, 동력실, 중국만Chines Cove으로 불린 자그마한 선착장으로 구성했다.<sup>5)</sup>

엔젤섬이민국은 1910년 1월 21일부터 1940년 11월 5일까지 운영

되었다. 이 시기에 약 80여 개국으로부터 수십 만 명의 이민자가 입국 허가를 받기 전 이곳 엔젤섬 목조건물에 머물며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고, 건강 상태를 검진 받았다. 이민국 행정실 기록이 1940년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100만 명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거쳐 갔고, 그 중 30만 명 정도가 엔젤섬이민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일본, 동남아, 멕시코, 필리핀 이민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러시아,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 이민자들도 있었다.<sup>6)</sup>

엔젤섬이민국은 1940년 11월에 화재로 행정사무실이 불탄 후 문을 닫았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 전쟁포로를 수감하는 장소로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하는 장소로 사용 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방치되었다. 1970년, 엔젤섬에 피크닉 오는 지역주민이 늘어나자 캘리포니아 휴양관리부는 위험하고 보기 흉한 옛 이민국 건물들을 허무는 중에 공원관리자 알렉산더 와이스(Alexander Weiss)가 막사 벽에 새겨진 서체(書體)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조지 아라키(George Araki) 교수에게 연락하였고, 아라키 교수는 사진작가 마크 타카하시(Mrj Takahashi)를 대동하고 건물 안 여기저기에 남겨진 시들을 기록했다.<sup>7)</sup>

막사 벽의 서체들은 wings 꺾었던 것처럼 중국인 이민자들이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억류되어 있으면서 벽에 새긴 시들이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더 길게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여기에 억류되어 있었던 중국인들은 당시 그들이 느꼈던 희망과 절망, 후회, 슬픔, 좌절,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내용의 시를 막사 벽에 새겨 넣었다. 상한(xiangshan)에서 온 한 중국인의 기록에 따르면 벽에 새겨진 시들이 수 만개에 이른다고 하였다.<sup>8)</sup>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정말 수 만개의 시가 새겨졌었는지는 확인 할 방법이 없지만 현재 보존

되어 기록되어 있는 시들은 200여 편으로 대부분은 날자나 서명, 이름이 없다. 1940년 화재로 인해 목조건물이었던 이민국 막사 벽 시들은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는데, 남은 시들은 하얀 벽에 음영으로 새겨진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스란히 사라질 뻔 했던 시들이 우연하게 발견되자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샌프란시스코 만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엔젤섬이민국역사자문위원회(AIISHAC: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Historical Advisory Committee)>를 창설하고 이민국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막사를 재건하고 중국인 시를 보존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25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1983년부터 엔젤섬의 막사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엔젤섬이민국재단(AIISF: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Foundation)>이 건립되었다. 이 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이민국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97년에는 엔젤섬이민국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고, 1999년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이주자들의 시를 보존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조성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엔젤섬이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1500만 달러를 비축했다. 이후 2004년부터 문을 닫고 2009년 다시 오픈할 때까지 지붕을 다시 고치고,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통로를 만들고, 전시관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막사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병원을 복구하여 새로운 이민박물관이 개관되었다. 현재 이민국박물관은 캘리포니아 주<sup>88</sup>와 캘리포니아역사관리부에서 관장한다.<sup>9)</sup>

결국 와이스가 아니었다면 이민국이 문을 닫으면서 영원히 문 뒤에 묻히고 잊혀 질 뻔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엔젤섬 목조건물 벽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그들이 남긴 시는 미국 이민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어두운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벽에 시를 새겨 넣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현재 남아 있는 200여 편의 시는

큰 이야기에 가려져서 간과되어 온 개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벽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세계의 핍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척당한 이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19세기 후반기에 관한 연구로 중국계미국인 커뮤니티와 역사연구,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사회사적 배경연구, 법 제정과 제정이 후 보완, 강화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인 이민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아주 근자<sup>近者</sup>에 2세대·3세대 중국계 미국인들은 엔젤섬이 민국 막사 벽에 남겨진 시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선조의 회고록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덜 다루어진 ‘그들의 이야기’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역사소설로 또는 어린이 동화책 형태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한다.<sup>10)</sup> 우리나라 미국사학계에서도 중국인 이민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지만 주로 정책차원에 집중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sup>1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중국인이 남긴 기록과 그들이 벽에 남긴 시, 엔젤섬이민국과 관련된 사람들(통역사, 조사관, 이민국장 등)의 인터뷰 및 회고록, 당대의 저널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엔젤섬에서 중국인이 겪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기존 미국 이민사에서 엔젤섬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재고한다. 따라서 이 글은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가려져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정상적인 인종적 편견에 대면한 중국이민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연구가 지니는 현재적 함의를 찾는다.

## 환대받지 못한 중국인들: ‘중국인들은 모두 쫓아내야 해!’

19세기 후반기에 타이러스 윙처럼 ‘금산’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기회를 찾아,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으로 향했다. 오고픈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나라였던 미국은 비록 주<sub>州</sub>차원에서 가톨릭 교인이나 퀘이커도의 이민을 금하거나 자유흑인의 이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열린 나라’였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엘리스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19세기 후반기에 이민을 배척하는 토착주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불길처럼 번졌다. 당시 대중잡지나 신문에는 중국인들을 “열등한 저질 인종”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쥐새끼들” “짐승들” “돼지”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인에 대해 ‘본질적인 차이’를 내세우며 그들의 이주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나 카툰도 실렸다. 백인들에게 중국인은 미국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존재들이었다.<sup>12)</sup>

1880년에 출간된 캘리포니아 작가 피어턴 두너<sup>Pierton W. Dooner</sup>의 소설 『공화국의 최후』*Last Days of the Republic*는 19세기 말 서부에 널리 퍼져있던 중국인혐오를 그대로 반영했다. 두너는 서부해안에 도착한 중국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소설화하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기시켰다. 그의 소설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매너, 옷차림, 생활습관, 종교 등에 있어서 백인과 다르며, 동화하거나 사회적으로 교류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도적이기도 하다. 중국인 이주자들의 현존은 계획된 침략의 전조이며, 캘리포니아의 백인 노동자들이 이런 계획을 처음으로 예견하고 중국인들을 쫓아내야 한다<sup>chinese must go!</sup>고 선포한다. 두너는 만약 중국인의 수가 늘어나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할 경우 ‘외국인 지도자<sup>alien crown</sup>’ 통치 하에 “국가로서 국민으로서의 미국이라는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sup>13)</sup>

피어턴 두너가 대변한 중국인 혐오와 비하, 그리고 우려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다. 19세기 후반기에 빠른 산업화와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시민권’ 개념이 등장했다. 이제 과거 이상적 시민이었던 자영농은 급증한 임금노동자들과 그리고 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서 백인 임금노동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중국인 노동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중국인노동자의 위치는 아직 불분명 했다. 여기에 1870년 이후 반복된 경기침체, 점차 커지는 임금의 격차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백인 노동자들은 이를 중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백인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자를 “기계 machine-like”로 비유하며 그들이 저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금 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설파했다.<sup>14)</sup>

1882년 노동자 신문 『와스프 *The Wasp*』에 조지 켈러 George Frederick Keller가 그린 삽화 <우리 청년들은 어떡해? *What Shall We Do With Our Boys?*>를 살펴보면 가운데 중국인은 10여개의 팔을 가진 원숭이로 묘사된다. 그는 여러 개의 팔로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 수익은 중국으로 보낸다. 옆에 밀려나 있는 백인 젊은이들은 할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다. 이 삽화는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대다수 백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투영했다.<sup>15)</sup>

따라서 국가의 공익과 미국노동자들을 위해 중국인 이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녔고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카메론 킹 Cameron King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은 중국인은 “더럽고, 부도덕하고, 무식하고, 타락하고, 범죄적인 성향이 있다”고 묘사하며,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서부해안이 중국에 의해 장악되도록 놔두는 일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정책이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에 지속적으로 해악이 되며 우리의 공화정 정부에 영속적으로 위협이 된다.”

고 주장했다. 킹 역시 두너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다. 1879년 99%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중국인의 이민을 반대하였고, 이는 백인들이 오직 배척만이 ‘외국인<sup>alien</sup>’의 해악을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음을 의미했다.<sup>16)</sup> 그러자 주·지역 단위에서 중국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법령이 통과되었고, 이는 국가적인 주목을 끌었다. 그리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적이나 인종에 기반하여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바로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배척법이다.<sup>17)</sup>

그리고 중국인배척법을 시행, 보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의 기능과 이민국 직원의 역할 또한 한층 강화되었고, 중국인의 입국과정과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1907년~1921년 이민부정보부장<sup>Immigration Bureau's Division of Information</sup>으로 일했던 테렌스 파워드리<sup>Terence V. Powderly</sup>는 중국이민자 면책계급을 더 축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인 쿨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나 인종 때문만이 아니라...그들이 우리와 동화되지 않으며, 옷차림도 이상하고, 우리 관습, 언어, 종교 또는 감성을 따르려하지 않기 때문이며...미국과 중국문명은 양립할 수 없다. 같은 땅에서 산다면 함께 번성 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망하고야 만다.”고 중국인이민 배척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와 같은 사람을 이민국 조사관으로 임명하였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입국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sup>18)</sup>

엔젤섬이민국은 설계 당시 ‘서부의 엘리스섬’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민국”이 샌프란시스코 만에 위치한 엔젤섬에 세워진다고 선전되었지만 뉴욕의 엘리스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sup>19)</sup> 엘리스섬은 유럽이민을 환대하고 미국의 이민유산을 축하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이민자들은 대충 시행하는 신체검사와 짧은 인터뷰를 했고, 단지 몇 시간 정도만 엘리스섬에 머물렀다.<sup>20)</sup> 반면에 엔젤섬이민국은 처음부터 중국인 이민을 배척하고, 이미 미국에 와있는 중국인을 모니터하고,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중국인을

추방하는 ‘파수꾼<sup>gatekeeping</sup>’ 역할을 수행했다. 더욱이 근처의 알카트라즈 섬의 감옥소처럼 엔젤섬에서는 도망치기가 어려워 통제하기 쉬웠고,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졌다.<sup>21)</sup>

엔젤섬은 “가장 훌륭한 이민국”이라는 묘사와는 정 반대로 신선한 물 공급이 어려웠고, 건물은 조잡했고,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 이민국 관리들 표현을 빌리면 이민국 목조건물은 “정말로 불타기 쉬운 허접한 건물<sup>virtual tinderboxes</sup>”이었다.<sup>22)</sup> 이곳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은 입국이나 추방이냐를 가르는 결정을 기다리며 갇혀있어야 했다. 엔젤섬을 통해 미국에 들어 온 중국인들은 마치 수용소 같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온 그들에게 그 장소는 ‘깨어진 꿈’을 상징했다.

## 엔젤섬에서의 이야기

### 1) 차별과 모멸감

엔젤섬 이민국은 철저하게 ‘본질적인 차이’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 및 분리방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엔젤섬으로 들어온 이민자의 2/3가 중국과 일본에서 왔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인종, 계급, 젠더, 국적에 따라 분류되었고 대우와 처분이 달랐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이민국 관리와 의료진이 배로 올라와서 모든 승객과 선원들의 서류와 건강상태를 예비 점검하였는데 이미 이때부터 ‘본질적인 차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주로 백인이고 부유한 1등 칸 승객들은 자신의 선실에서 대충 검사를 받았고 2등 칸 승객과 더불어 바로 하선할 수 있었다. 3등 칸과 선미의 승객들은 주로 가난한 아시아

인들이었다. 이들은 서류가 미비한 백인과 함께 페리에 태워져 엔젤섬으로 이송 되었고, 그곳에서 보다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대다수의 백인들은 엔젤섬으로 가지 않았고, 설령 엔젤섬으로 이송 되더라도 체류 기간이 짧았다. 반면에 모든 중국인들은 입국이 허용 될 때 까지 상당 기간 엔젤섬에 억류되었다.<sup>23)</sup>

일단 엔젤섬에 도착하면 짐들을 선착장 수하물 창고에 넣어 두고, 바로 이민국으로 안내되었다. 이민국에 도착한 날 처음 들르는 곳은 행정 빌딩이다. 행정빌딩은 등록실, 사무실, 신체 검사실, 4개의 식당, 관리용 기숙사와 입국자용 막사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대기 장소에서 빠른 조사와 등록을 마친 후 막사로 배정되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따로 분리되었고, 이외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와 함께 2층의 분리된 장소에 배정되었다.<sup>24)</sup> 1921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엔젤섬에 도착한 어린 소녀 리는 엔젤섬에 도착한 날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일단 모든 사람이 배에서 내리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승객을 훑어 본 후 일본인/ 다른 아시아인/중국인, 그리고 여자와 12세 미만 아이들/ 남성으로 분류했다. 백인들은 줄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빌딩으로 걸어 들어 갔다.<sup>25)</sup>

리의 기억처럼 이민국에 도착하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수용되었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아내와 남편도 서로 소통하기 어려웠다. 막사, 식당, 식사 시간대, 레크리에이션 장소, 병원 입구와 병동 등 모든 시설이 국적, 인종, 젠더로 구별, 분리되었고, 수가 많지 않은 백인에게는 보다는 시설과 음식이 제공되었다.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깊이 새겨진 인종적 편애주의가 반영 된 것이다.<sup>26)</sup>

막사를 배정 받은 후 며칠 내에 행정실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특히 신체검사는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절차였다. 백인들은 대충 트라코마 증상이 있는가 정도의 안과 검사를 받은 반면에 아시아계 이민은 혈액검사, 기생충 여부를 판단하는 분변검사등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1891년 법령에 의하면 트라코마, 결핵, 매독, 임질, 한센병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험한 전염병”은 추방의 사유가 된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이런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sup>27)</sup> 남자들은 속옷까지 벗고 신체이상 유무를 검사받았다. 발가벗겨져 결눈질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금속 캘리퍼스로 검사 받고 기생충 감염 검사를 받는 일은 참으로 모멸적인 경험이었다.<sup>28)</sup> 이에 대해 한 억류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신체검사 과정은 특히 모욕적이었다. 의사는 내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바람을 견뎌야 했다 [의사는] 가슴과 척추를 살펴보고는 원숭이처럼 뛰어보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게 신체검사인지 아니면 모욕을 주려는 행동인지 확신 할 수 없었다.<sup>29)</sup>

여자들은 탈의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면밀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혐오스러운 검사방법은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미국내 중국인 커뮤니티도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니즈 디펜더』(Chinese Defender)는 “기생충을 지닌 이민자가 도착하면 누군가는 밤새워 기생충을 없앨 방법을 생각한다. 이는 정말 신의 한수다.”라는 사설을 실으며 기생충검사는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려는 교묘한 방법이라고 비난했다.<sup>30)</sup> 중국인 단체들과 외교적 집단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민국은 일단 기생충을 재분류했고, 신체검사를 자비부담으로 받게 했다.

결국 아시아계 이민은 유럽이민에 비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입국이 거부되는 확률이 훨씬 컸고, 엔젤섬에 더 오래 머물러야했으며,

경비 또한 많이 들었다. 비록 운 좋게 신체검사를 통과해도 입국신청 서류에 대해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받기 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어린소녀 리는 조사받기까지 1달을 기다려야 했고, 조사가 시작되어도 수일 또는 그 이상이 걸렸다고 기억한다.<sup>31)</sup>

모멸적인 신체검사 후에도 입국 서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2주, 3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리자 중국인 입국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이민국은 한 사람의 이민국 직원 대신에 두 명의 이민국 조사관과 1명의 속기사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Board of Special Inquiry Hearing)를 구성하여서 중국인 입국자들만 따로 심사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중국인 입국신청자가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었다. 조사관은 입국승인과 거부에 있어서 거의 모든 재량권을 지녔다. 따라서 조사를 위한 질문 수나 내용 모두 조사관에 달렸다. 한사람의 신청자에게 쏟아 부은 질문은 보통 200개~1,000여개에 달했고, 그에 대한 속기사의 기록이 보통 20장에서 80장이었다.<sup>32)</sup> 1929년부터 6년간 이민국의 속기사였던 에머리 심스 Emery Sims는 조사관은 신청자 가족과 관련 된 모든 파일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런 탐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고했다. 처음부터 서류심사와 탐문은 ‘고양이와 쥐 게임’이었다.<sup>33)</sup>

다음의 내용은 조사관의 질문들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소모적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엄마와 두 아들이 입국을 신청하였고, 조사관은 따로 각자에게 ‘집에 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엄마와 아들 1은 각각 있다고 대답했고, 아들 2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사관은 엄마를 다시 불러서 물어보자 다시 있다고 답했고, 아들 1도 다시 개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들 2는 다시 없다고 대답하고는, ‘개가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잡아먹어서 없다’고 뒷붙였다. 만약 아들 2가 끝까지 없다고 했다면 3사람 모두 추방되었을 것이다.<sup>34)</sup>

1923년에서 33년까지 엔젤섬이민국장을 지낸 존 네이글<sup>John D. Nagle</sup>은 1910~1924년까지 중국인 입국신청인 중 평균 93%가 입국이 허용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상인 또는 미국태생 시민의 아들 또는 딸로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영악한 중국인의 허를 찌르기 위해’ 수 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인 입국자의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1906년 화재로 서류가 소실되어 위조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네이글 같은 ‘파수꾼’은 집중적인 교차 심문을 통해 위장이주를 근절하려고 했다.<sup>35)</sup>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다른 어떤 이민그룹 보다도 소모적이고 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상인으로 입국을 신청한 중국인은 사업 활동과 장사규모, 고객명단에 대해 상세한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2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증인은 신청인의 용모, 글씨체, 의복, 심지어 손에 못이 박혔는가, 손이 부드러운가 까지를 증언해서 신청자가 진짜 상인인지, 상인으로 위장한 노동자인지를 구별해 내려했다. 만약 증인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엔젤섬으로 증언하러 와야 했고, 그리고 다시 신청자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더 심문했다. 이 같은 조사 방법으로 인해 최종 서류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sup>36)</sup>

1920년경에 이르면 중국인들은 “서류상의 아들, 딸” 전략을 더 많이 활용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짜 아들 또는 딸임을 확증하거나 거절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와 증인들에게 상세한 진술을 요구했다. 어떤 질문은 도저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다. 친척들 이름은 무엇인가, 동네에 집은 몇 채인가, 부모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언제인가, 1년에 아버지로부터 몇 번 편지를 받는가, 다락방까지 계단이 몇 개인가, 너의 결혼식에 몇 명의 하객이 왔는가 등등. 진짜 아들, 딸조차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답해야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신청인과 증인 대답 간에 아주 사소한 불일치만 있어도 바로 입국이 거절되었다. 따라서 조사가 몇 날이고 계속되는 동안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날 수도 있고, 잘못 된 대답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기 몇 달 전부터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엔젤섬 도착 후에는 예상답안을 몰래 유입하여 외우고는 했다.<sup>37)</sup>

미국 시민 또는 상인의 딸이거나 아내로 미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녀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이 면책신분임을 증명해야했고, 자신의 신분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했다. 출생이나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면 결혼관계나 생활환경에 대해 아주 사적인 질문까지 받았다. 매춘부로 의심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저지른 여성은 더 긴 인터뷰와 그들의 성적 역사에 대한 강압적인 질문도 받아야했다. 한 중국인 매춘부가 입국을 신청했을 때, 그녀는 1등석 승객이어서 바로 하선 할 수 있었지만 익명의 편지로 그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들은 그녀를 엔젤섬으로 데려갔고 매우 소모적인 검사를 시행했다. 수많은 질문과 잘못된 정보에 화가 난 그녀는 조사관을 공격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바로 추방되었다.<sup>38)</sup>

조사관에 의해 입국거부 판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1910~1924년 동안 입국거절 된 중국인 중에서 88%가 항소하였고 그중 55%가 항소로 입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항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엔젤섬에 억류되어 지내야 했다. 엔젤섬 이민국의 이 같은 조사과정에 대해 워싱턴 D.C.로부터 매우 불공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sup>39)</sup>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국인 통역사였던 에드워드 리(Edward Lee)는 엔젤섬이민국에 이민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9명의 통역사가 근무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통역사와 중국인간의 내통과 공모를 막기 위해서 각 통역사가 중국인 한명씩 통역을 맡았다. 즉 부모와 아들 한명인 가족이 조사받을 경우 3명의 통역사가 한 사람씩 통역을 했다. 따라서 한 건의 서류를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 또는 3일이 걸렸다. 에드워드 리는

“우리는 단지 질문과 대답만 통역했지만 방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내가 아들이 청산<sup>Chungsan</sup> 방언을 쓴다고 말하고 아버지 통역사가 아버지는 타오산<sup>Toishan</sup> 방언을 쓴다고 말하면 조사관은 즉시 수상하게 여기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 조사관은 두 사람의 외모가 닮았는가를 판단한다. 3인으로 구성 된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입국여부를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속기사가 결정권을 지녔다.”고 회상했다.<sup>40)</sup> 그리고 중국인 이민자들이 엔젤섬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생각에 엔젤섬을 경유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고된 시련을 겪었다. 오랜 기간 밀집된 막사에 갇혀서 지내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심리받기까지 적어도 2주 이상은 기다려야했고, 만약 거절당해서 항소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그들은 매우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모두 중국인배척법 때문이었다.... 조사관들은 대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나라로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온 것이니 그들이 올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sup>41)</sup>

이민국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교차탐문 방법이 위장 이민을 가려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지만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중국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합리하고 가혹한 처사였다. 다음의 시는 강제 억류당한 중국인의 회한과 분노를 잘 표현한다.

서양 야만족이 마음과 이성을 잃어버린 줄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그들은 100가지 종류의 법들로  
우리 중국인을 혹사하네<sup>42)</sup>

항소 할 경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엔젤섬에는 언제나

200-300명의 중국인 남성과 30-50명의 중국인 여성이 억류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막 도착한 중국인,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돌아온 중국인, 항소 후 판결을 기다리는 중국인, 미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거나 오는 중국인들이 함께 섞여서 생활했다.

## 2) 막사생활: ‘그들의 이야기’

엔젤섬이민국 막사는 거의 감옥과 다름없었다. 남자들은 1층 2개의 커다란 방에서 지냈고, 막사 방은 어둡고, 공기가 탁했으며, 방 가득 3층짜리 철제침대가 열을 지어 놓여있었다. 각 방에는 거의 200명이 수용되었고 사생활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비위생적이고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이었다. 창문에는 창살이 쳐져있고, 막사 밖에는 감시인이 있었다.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사 주변에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다. 억류된 사람들의 일상은 아침 기상신호에 따라 일어나고, 행정빌딩에 위치한 식당에서 세끼 식사를 하고, 취침소등에 따라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실내에 갇혀 지내는 중국인들은 수심에 잠긴 채 공상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중국인들은 가져온 책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 온 신문을 읽었다. 남자들은 낮에는 울타리가 쳐진 야외활동 장소에서 체력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인종적으로 분리되었다. 일주일에 한번 감시 하에 걸어서 선착장 수하물 창고에 가서 짐 가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다.<sup>43)</sup> 막사 벽에 새겨진 다음 시는 막사생활의 암담함과 회한을 이렇게 전한다.

매일 목조건물에 갇혀 지내며  
내게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처럼 외로움과 슬픔을 겪은 후  
왜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발가는 일을 배우지 않는가?<sup>44)</sup>

여자들은 막사 2층에 위치한 방 한 칸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녀들의 생활 역시 암울했다. 여자들은 대부분 뜨개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간혹 샌프란시스코 친척이 보내 온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했다.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주기적으로 감시인의 인도 하에 그룹별로 밖에 나가 걷는 일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남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 시민의 ‘서류상의 딸’로 입국신청 후 20개월 동안 엔젤섬에 억류되었다가 홍콩으로 추방된 리퓌에유Lee Puey You는 당시의 고통을 훗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 아침 7시면 좌우 좌우Chow Chow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깬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가 아침을 준다... 그리고 다시 막사로 데려와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게 다다. 마치 감옥 같았다. 그들은 우리를 죄수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우리가 남자막사로 가서 말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자살 할까봐 두려워했다. 어디로 도망간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 죽을 것처럼 울었다... 여성막사는 5, 60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한 방에서 지냈는데 사람이 많아 늘 시끄러웠다. 한밤중에는 옆 침대에서 우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다... 엔젤섬에 앉아서 그저 평평 울기만 했다... 중국에 있을 때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 할 줄 몰랐다. 모두가 미국은 천국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엔젤섬에서 그들은 중국인을 마치 도둑이나 강도처럼 취급했다,<sup>45)</sup>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국인 남자들은 일종의 자치회 겸 상호회 성격의 〈엔젤섬자유연맹Angel Island Liberty Association〉을 조직했다. 엔젤섬 막사에 도착한 중국인은 이 조직에 가입이 권유되었다. 이 조직은 새로 도착한 사람 환영, 막사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막사내의 질서유지,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제공, 불만과 요청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엔젤섬자유연맹〉은 조사관의 교차심문에서 예견되는 무수한 질문들에

대한 일종의 예상답안지<sup>coaching notes</sup>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예상 답안지는 여러 방법으로 전달되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미국내 친척들이 보내는 선물꾸러미 안에 넣어서 전달됐다. 편지와 선물꾸러미를 검사하는 관리들은 주로 오렌지나 바나나, 심지어는 땅콩 껍질 안에서 불법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곤 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민국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요리사들이 약간의 돈을 받고 심부름을 했다. 즉 비번 일에 차이나타운에 가서 엔젤섬에 억류된 중국인의 지인으로부터 답안지를 받아왔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엔젤섬자유연맹> 임원에게 전해주면, 그는 막사로 가져가서 지정된 사람에게 전했다. 중국인들은 만약 이 답안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모두가 증거를 없애는데 일조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한 여성이 막사 식당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부러 떨어뜨린 쪽지를 집어 들어서 옷 안에 감추다가 감시관에게 발각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up>San Francisco Chronicle</sup>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50명의 중국남자들이 덤벼들어 감시관을 덮쳤고, 한 남자가 이를 찢어서 삼켜버려 증거를 없앴다.<sup>46)</sup>

1920년 말에 이르면 <엔젤섬자유연맹>이 구입한 축음기, 중국 오페라 레코드, 악기 등이 입수되어 단조로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엔젤섬에 억류된 생활은 여전히 감옥의 죄수생활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중국인들만 입국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누구의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입국신청자들은 하루나 이틀 내에 모든 조사가 끝나는데 비해 자신들의 억류가 너무나 긴데 대해 분개했고, 특히 강요 된 무료함과 막사의 황량한 환경으로 불평이 더욱 커졌다. 1922년 33세였던 한 여성<sup>mrs. Jew</sup>은 “일본인들도 꽤 보였는데 그들은 24시간 안에 떠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감금되었다. 나는 ‘이렇게 간혀 지낼 거면 쓸데없이 여길 왔다. 마치 감옥같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편지 쓸 장소도 없다.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다. 침대만 있을 뿐.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늘 생각했다.”고 회고했다.<sup>47)</sup>

중국인들의 불만 중 음식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그들이 음식의 질과 양, 그리고 서양식 음식에 대해 불평하자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했지만 워낙 적은 예산이어서 음식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1916년 경우 한 끼에 8 센트 정도의 예산으로 음식 맛과 질이 형편없었다. 게다가 수백 명에게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년간 주방의 조수로 일했던 로우씨<sup>Mr. Low</sup>의 기억에 따르면 “식당에는 33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마다 6~8명이 식사를 했다. 내가 이민국 식당에서 일할 때는 70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억류되어 있어서 순번을 정해서 먹어야 했다.… 우리는 한 그룹이 먹고 나면 다음 순번이 오기 전에 테이블에 음식을 재빨리 가져다 놓았고, 그들은 먹고 바로 떠났다.… 그룹마다 두 명의 감시인이 식당까지 따라왔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와 떠나기 전에 머리수를 세었다.” 1919년에는 큰 소요가 일어나자 맥도웰 요새<sup>Fort McDowell</sup>로부터 군대가 파견되기도 했다. 다음 해에 워싱턴 D.C. 당국은 상황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음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sup>48)</sup>

3주 동안 엔젤섬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안문홍<sup>Jann Mon Fong</sup>은 자신이 엔젤섬에서 받은 대우에 크게 분개하여 고국의 친구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의 글은 중국의 『렌지안시<sup>Renjian Shi</sup>』지에 「금산으로 간 한 남자의 독백<sup>A Gold Mountain Man's Monologue</sup>」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그의 글에는 엔젤섬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모멸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페리에 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 미국인들은 우리를 가축처럼 취급했다. 저 초록색 눈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중국인들을 돼지나 염소 새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술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 글을 통해서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미국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하지 않으며 우리가 엄청난 모멸감으로 고통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sup>49)</sup>

엔젤섬 막사에서 입국심사나 자신의 항소판결을 기다리던 수많은 중국인들은 벽에 시를 쓰면서 절망과 불안을 해소했고, 분노를 새겨 넣었다. 막사 벽에서 99개의 시를 복사했던 안몬홍은 “막사 모든 벽에는 수없이 많은 시, 운문, 유사한 대구對句들이 쓰여 있었다.… 이 글귀들은 미국으로의 여정에서 겪은 고난을 증언한다. 글 중에는 절망과 수치심으로 인해 자살을 언급한 글도 있다. 이 시들을 보니 슬픔과 비통함이 물려왔다.”고 당시 중국인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리푸에유Lee Puey You의 회고에 따르면 여성막사 화장실 벽에도 슬픔과 절망에 찬 글들이 가득 적혀있었다. 그녀 자신도 “고향, 가족, 친구를 뒤에 남긴 채 떠나면 대양을 건너 미국에 왔건만 누가 목조건물에 꼼짝 못하게 될 줄 알았겠는가. 언제나 자존심을 되찾고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알 길 없네”라는 글을 써 넣었다. 하지만 1940년 화재로 여성들이 쓴 시들은 모두 소실되었다.<sup>50)</sup>

벽을 빼곡히 메운, 그리고 쓰고 또 그 위에 덧 씌워 진 시(서체)들은 엔젤섬이민국에서의 중국인들의 하루하루의 고통과 비참한 생활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현재 200여 편의 시와 33편의 그래픽 이미지, 300여개의 명각銘刻이 남겨져 있는데, 모든 시는 전통 중국 시 스타일에 따라 4~8 행과, 한행에 5~7 글자로 구성된 시 형식으로, 짝수 행의 마지막 글자들은 운韻을 맞추었다. 어떤 시들은 역사적, 문화적 암시와 더불어 분노, 동경, 불안, 절망 등을 절절하게 잘 표현했다. 대부분의 시에는 날자와 서명이 없었는데 이는 처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음의 시를 포함하여 이 시들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모욕과 냉대를 증언 할 뿐 만 아니라 보나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그들의 꿈이 엔젤섬이민국에서 산산조각 깨어지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나는 나의 슬픔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 시를 쓴다,  
지금, 나의 입국 신청이 아직은 거부되지 않았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적노라니, 진정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 앉아, 쓸데없이 수년, 수개월을 지낸 뒤 채,  
나는 새장 속에 갇힌 비둘기 같다.<sup>51)</sup>

한편 중국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억류당하고 추방당한다는 생각이 다수의 시에서 보인다. 한 예로 다음의 시를 소개한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목조건물로 이송되어  
죄수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고,  
나는 추방당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너무 놀라 당황했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우리 약소국의 중국인들은  
자유를 뺏긴 채 한숨 만 실 뿐이다<sup>52)</sup>

1910년에 문을 열자마자 중국인 이민자들은 막사 내부 벽에 시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지역 감독관(District Commissioner) 하트 노스(Hart Hyatt North)는 막사 벽이 그라피티로 가득 덮여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후 30년 동안 8번이나 페인트를 다시 칠했고, 시는 계속 덧 새겨졌다. 1931-1932년 이곳에 억류되었던 중국인 억류자 중에서 두 사람이 벽에 새겨진 시 중에서 각각 80~90편씩 기록했고, 1970~80년대에 학자들이 135편 정도를 기록했다. 2004년 이후 연구와 조사가 더 진행되었고, 시와 더불어 이미지, 명각들이 발견되어 현재 200편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글이나 이미지들은 대부분 엔젤섬막사에 장기 억류되었거나 입국이 거절 되어 추방당하기 전에 새겨

넣은 내용으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훗날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듯하다.<sup>53)</sup>

## 현재적 함의: ‘차이’를 넘어서 ‘환대’로

현재 엔젤섬은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과 캠핑을 즐기는 아름다운 국립 공원이다. 한 때 ‘서부의 엘리스섬’이라 불리던 이 섬 북동부에는 과거 이민국이 있었던 2층짜리 목조건물이 있고, 건물 오른 쪽 맞은편에는 올해(2022년) 1월 이민박물관으로 개관한 병원건물이 있다. <엔젤섬이민국 재단>은 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며 2월 2일자 뉴스레터에 “우리는 2022년을 엔젤섬이민박물관 개관이라는 축포와 함께 시작했다.”는 글을 실었다. 이처럼 과거 이민국이었던 장소는 이제 아시아계 이민을 기념하는 문화센터와 박물관으로 탈바꿈하여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는 공통된 역사의 공유와 성찰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즉, 국가의 통합적인 측면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sup>54)</sup>

이주는 미국정체성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미국이민의 역사는 뉴욕 엘리스섬의 이민역사로 대변되어왔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엘리스섬을 통해 들어온 1,200만 여명의 유럽인 이민 역사는 엠마 라자루스(Emma Lazarus)의 유명한 글귀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지치고 가난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와 공명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엘리스섬의 이민역사가 전적으로 미국이민의 전통과 유산 일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엔젤섬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엔젤섬의 이민역사는 미국이 어떤 집단은 환영하고 어떤 집단은 배제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민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신화(mythos)와 인종, 계급, 젠더에 의한 차별을 한층 강화한 현실간의 모순과 간극을 보여준다.<sup>55)</sup>

엔젤섬이민국 막사 벽에서 발견된 시들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엔젤섬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백인들은 ‘더럽고, 부도덕하고 저질인 중국인’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은 미국이민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은 ‘열린 나라’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한 외국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파수꾼 나라’로 변모되었다. 이민조사관, 억류시설, 미국여권과 그린카드, 이민서류 등의 이민규제 방법과 기술을 작동시켰고, 이는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주자 한 개인에게 미친 영향과 해악이 크고도 깊다. 엔젤섬은 중국인배척법이 구현되는 장소였고, 가짜 서류를 들고 “서류상의 자식”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은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이곳에서 억류당해야 했다. 입국이 허용된 후에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야 했고, 가짜 신분이 언제 들통 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sup>56)</sup>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고, 정치적 활동을 피했으며, 과거 자신의 신분위장과 이주경험에 관한 진실을 자식들에게까지도 숨겼다. 따라서 이 법이 초래한 가장 깊은 해악은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준 심리적 상처이다.

미국 의회는 2001년 미국인구구성연구법(The Peopling of America Theme Study Act)을 제정하여 미국의 다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1882년 제정된 중국인배척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인 이주에 의미를 부여했다. 즉 미국인구구성연구법은 중국인 이주경험을 ‘미국으로의 이주’라는 단일한 이야기에 접목시킴과 동시에 확고부동한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사회, 도덕적 질서에 위험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중국인 이주가 오늘날에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고난의 공유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과정에서 2012년 미국의회는 중국인배척법 130주년을 맞아 “유감을 표현하며” 입법적 잘못을 시인했고, 미국 정부는 과거 중국인배척법과 엔젤섬이민국의 불의와 해악을

인정했다.<sup>57)</sup> 그러나 공유된 경험과 통합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인 이주자들이 겪었던 특수한 경험들이 총체성에 묻히고 있다. 즉 그들의 경험이 중국인 배제라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역사에서 미국 역사는 더 큰 그림 속으로 다시 보편화 되고 통합되고 있다.<sup>58)</sup>

엔젤섬이민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증언과 자료를 남겨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는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차이’를 넘어서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

19세기 말 백인들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중국인을 ‘타자화’했고, ‘다름’과 ‘차이’를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중국인을 더럽고 불결하고 오염된 몸을 지닌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취급했다. 이처럼 한 민족이나 인종을 집단적으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태도는 백인들이 자신들의 가치와 관점을 규범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는 신념에 기초한다. 백인들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 비백인 집단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기재로 인종차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집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회관계의 형식이며, 집단적 차이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며, 끊임 없이 다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sup>59)</sup>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이민의 시대’이다. 이 지구의 거주민들은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늘 나와 다른 ‘타인’을 만나고 접촉한다. 우리는 엔젤섬의 역사로 부터 ‘차이’를 차별의 도구로 삼지 말고, ‘차이’를 넘어서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환대는 타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으로 대접하는 행위이며 태도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성원권成員權을 갖는다는 뜻이며, 사회적 성원권을 갖는 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대접”이기 때문이다.<sup>60)</sup>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깨어지고 조각난” 꿈의 전모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새겨 들고 기존의 이민역사 서술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하겠다. 이 같은 과제를 안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이민을 제한하고, 국경을 넘는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미국은 백인의 나라여야 한다는 오래된 편견과 오만으로 이민의 문을 닫으려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미국인 수천 명이 차이나타운에 모여서 외친 구호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882를 기억하라. 인종과 국적으로 이민을 배제하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잘못 된 일이다.”<sup>61)</sup>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황혜성,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 『미국사연구』 55,  
한국미국사학회, 2022

〈저자소개〉

**황 혜 성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황혜성은 미국사를 전공하고 미국의 이민, 인종, 여성 및 소수자를 주요 관심사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주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 「왜 호모미그란스(Homo Migrants)인가?: 이주사의 최근 연구동향과 그 의미」(2011), 「두보이즈의 ‘흑인의 영혼’: 두 개의 정체성을 지닌 흑인 이야기」(2013), 「로(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불법과 합법의 경계횡단」(2019), 「이주연구의 역사적 여정: 학제간 융합학문으로」(2024) 등이 있다.